

다산포럼

역사의 기사감(既視感)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은 조국이 워털루전투에서 패하자 제정의 부활을 일편단심으로 꿈꿨던 공상적 모험가였다. 그가 유랑자로 여러 망명지들을 떠돌거나 동쪽의 방당과 모욕을 견디며 절치부심하는 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파고는 거세졌고, 구제제 복귀에 골몰하던 부르봉파와 상층 부르주아와 결탁한 오를레앙파가 7월 혁명(1830)과 2월 혁명(1848)으로 차례로 몰락했다. 그 혼돈의 시기에, 보나파르트 왕가의 혈족이라는 점 외에 정치적으로는 거의 무명이었던 그가 그야말로 해석처럼 제2공화정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에 대한 대중의 환상, 특히 그의 삼촌에 대한 대중의 복고적 열망에 힘입은 바 컸다. 공화정의 일기제 대통령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3년 만에 전격 의회를 해산하고 여론투표(plebiscite)를 통해 쿠데

타를 사후에 정당화하며 나폴레옹 3세가 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보나파르티즘 독재체제(제2제정)는 영국에서 발원하여 유럽을 휩쓸던 산업화의 명암 속에서 근 20년 동안 지속됐지만, 프랑스가 보불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하면서, 시적이 그랬듯 돌발적으로 막을 내리고, 루이 나폴레옹이 품었던 제국의 꿈은 프랑스역사에서 영원히 소멸한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대중운동을 관찰했던 사회심리학자며 정치적 보수주의자였던 구스타프 르 봉은 저서 ‘군중’에서 자신의 이익과 문명을 스스로 거스르는 ‘최면술에 걸린 주체’로서 군중이 지닌 비합리성을 경고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대중의 속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처지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지언정, 대중의 열중과 수지심과 경멸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시점에서, 그것들은 집단적 분노가 되어 당대의 권력을 향해 분출한다는 점이다. 대중이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순간 또한 그 지점이다. 가령 20세기의 전체주의 정부들을 추종하고 추인했던 기만의 선봉에는 늘 지식인들이 서성했다고 관찰한 조지 오웰은 변화의 동력은 오직 보통사람들(의 품위)에서 나온다고 확신했다. 그가 한 꼬마가 거대한 짐마차 말(馬)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보고는, 동물이 자신의 힘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결코 그들

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며 냉소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점을 빗대고 있었다. 우리는 4·19혁명, 부마 투쟁, 6월 항쟁 등 한국 현대정치에서 격변의 전기를 마련했던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 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분주해야 할 정치가 이 땅에서만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들의 진원지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거니와, 하다 하다 이제 교과서를 갈등의 소재로 삼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 이르렀다. 군인의 정권 찬탈이라는 가장 모범적 형태의 군사정변을 쿠데타로, 도무지 논란거리일 수 없는 친일을 친일로, 지극히 표준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독재로 부르기 전염병 피하듯 꺼리는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무지와 광신의, 가장 위험하고 혐오스런 결합을 본다. 닷값없는 국정화 논란으로 민생을 제쳐 놓더니 민생 먼저 챙기자며 해묵은 민생좌판을 펼치는 일은, 도둑이 도둑잡으라고 외치는 꼴이요, 피의자가 재판관이 되어 형을 언도하겠다고 나서는 아바위 짓에 다를 아니다. 상식이 몰상식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을 향해 호통 치는, 정치에서 혼이 빠진 상황이 지속되는데 민주사회가 침묵했던 적은 역사가 없다. 회사가 힘든 것은 그것이 망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이 그저 막막한 시대가 만들어낸 수사

일 뿐이다. 도대체 잊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무릇 모든 용서에는 비용이 따르거니와, 그때 피해자는 물리적 상처를 스스로 떠안을 뿐 아니라 정신적 비용 곧 망각이라는 힘든 과정을 지러야 한다. 따라서 역사의 기록이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한 눈물겨운 분투요 훼손된 역사를 치유하려는 공동체의 자구책임 것이다. 잊는 것은 피해자의 목일 터인데 현 정권은, 참으로 기이하게도, 화롯불의 재를 뒤져서 불씨를 살리듯이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며 잊지 말라고 부추긴다. 평론가 어빙 하우는 오웰의 ‘1984’가 그린 세계를 평하다가 “히틀러는 책을 불태웠고 스탈린은 책을 다시 썼다”고 말했다. 역사를 논하려면 역사의 기아가 되기 십상이다. 국정화 소동의 주역들의 뿌리와 계보를 상고하다 보면, 현대사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그들이야말로 역사 해석의 마지막 주체가 돼야할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죄의식이 없으니 체면마저 마다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현대사에서 기사감이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지도자는 위기의 싹을 키우지 않으며, 혼란 중에도 저 바닥을 흐르는 압류를 예민하게 포착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눈 위를 덮은 왕관’을 내려놓고 민주적 지도자의 본령을 되찾길 바랄 뿐이다.

정춘 특·특

나를 성장시켜준 또 하나의 도전



윤 선 영
광주여대 어린이영어교육학과 3학년

6개월 전 친구에게 광주 국제 영어마을에 대해 듣게 됐다. 광주에 영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던 나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조 선생님을 맡아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곧바로 지원하게 됐고, 격정과 달리 다행히 면접을 통과하면서 매주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가고 있다. 처음 광주 국제 영어마을에서 보조교사로 봉사를 했을 때가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낙엽이 지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다가옴을 느낀다. 광주 국제 영어마을에서의 첫날은 아직도 생생하다. 누군가를 지도해 본적이 없었던, 특히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경험

이 없는 나에겐 더욱 부담이 됐다. 이미 봉사를 가기 전 많은 걱정을 한 터였다. 역시 많은 아이를 통제하기엔 나는 많이 서툴렀고 너무 힘이 들었다. 한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갑자기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당황한 채 남아 있는 아이들을 황급히 줄을 세우고 있는데, 한 아이가 높은 오르막길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다급한 나머지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너무 놀라서인지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할 정도로 나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어마을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채워야 할 것들을 꾸준히 고민했다. 이런 노력 때문일까? 아이들이 조금씩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손 유희’나 ‘영어게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하루는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을 반기던 중 한 아이가 나에게 다기와 종이를 건넸다. 무엇인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글과 함께 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날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 작은 편지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캔슬레 눈물 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날 이후 영어마을 봉사활동에 더 많은 열정이 생겼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더 깊은 애정이 생겼다. ‘교사’라는 경험이 없던 나에겐 영어마을 봉사활동 6개월의 시간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현직 교사들에 비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방학 실습을 통해서 ‘내가 많은 성장을 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다른 에피소드도 있다. 첫날, 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교사들과 수차례 마주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yes’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때 이후 영어마을을 가기 전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냐 궁금했던 질문들을 미리 준비했다. 원어민 교사와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루는 영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가 “이렇게 영어가 적힌 옷들을 보면 어때요?”라는 질문을 던진 적도 있다. “한국어가 적힌 옷을 입고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는 것과 같다”는 대답을 듣고는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도 있다.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하니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회화실력도 늘었다. 영어마을 보조교사라는 경험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격정과 달리 이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아침잠 많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영어마을을 통해 또 얼마나 성장하고 배우게 될지 기대된다.

기 고

음식문화지구 조성,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임 영 일
광주시 동구 부구청장

2015년 광주는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KTX호남선이 개통하면서 무등산 국립공원 등 남도의 관광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 또 지난 7월에는 143개국 1만7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려 빛고을광주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따뜻하고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아시아문화발전소 역할을 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9월 부분개방한 것에 이어 오는 25일 정식개관을 하면

서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동구는 구정 역점사업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서남동 구시청 일원에 조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음식문화타운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남도음식뿐 아니라, 각국의 음식을 맛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된 음식문화지구사업은 그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중앙투융자 심사 통과,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구시청 일원 상가 건물주 및 영업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추진동력이 모이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보조도 정비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이면 보차도 정비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이는 성사가 불분명했던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역사적인 첫 삽을 뜨는 셈이어서 가슴 뭉클한 감회를 느낀다. 우리 동구는 앞으로 구시청 일대의 보차도 정비, 골목길 거리 가로환경정비와 음식문화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필자가 문체부와 시 문화수도정책관 근무시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하게 돼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장 2016년도 국비확보가 문제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대응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음식문화지구 관련 정부예산은 미반영 상태다. 정부는 내년에도 추진되는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닌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국비를 편성해 주길 바란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올 12월에 착공될 보차도정비 사업은 교통통제, 보행자 통행 지장 등 영업활동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풍선간판 정비, 상가 앞 불법주정차 금지, 호객행위 자제 등 의식개혁운동에 인공상인들이 적극 동참할 때 세계적인 음식문화거리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시의적절한 국비지원, 행정의 추진력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병어리가 앞서서 갈 때 안에서 걸질을 쪼면, 어미닭이 동시에 밖에서 알을 쪼아 함께 걸질을 깨는 ‘출타동시(啼啄同時)’라는 사자성이자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골든타임이다.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개발은 물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社 說

민주주의 전당 광주 건립 약속 지켜져야

“민주주의 전당”건립 장소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광주만 한 곳이 있을까. 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광주를 배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한국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광주가 빠지면 전당의 빛이 크게 바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당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당을 서울에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성장에 앞장선 광주와 마산 등 상징성이 큰 도시들이 나서자 세 곳에 분산 건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의 경우 최근 이전한 북구 각화동 구 광주고도소 부지 19만 7000여㎡에 조성할 예정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내 4만㎡에 300억 원을 들여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유치위가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와 마산이 배제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서울에만 전당을 짓

는다는 계획에 따라 40억 원의 사업비가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만 전당이 들어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동건립이라는 애초의 합의를 깨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에서 “서울에 위치해야 국적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가당찮다.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려는 터전을 조성하면서 사고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모순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꾸고 후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일에 무슨 수도권 우월주의인가. 광주 민주주의 전당 유치 위원회와 시 관계자들은 금방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회 등을 방문해 공동건립 제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독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이를 저지하는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광주는 민주화 지지라는 명분과 함께 부지까지 갖춰 최적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정부는 전당 입지부터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군부대명에 지역 호국영웅’ 좋은 시도다

광주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향토사단인 육군 31보병사단(31사단)의 다른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받아낸 령장군의 시호를 따서 붙인 것이다. 최근 31사단이 예하 부대 역시 지역 출신 호국영웅의 이름을 딴 부대명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31사단(사단장·권혁신 소장)은 최근 20개 예하부대의 상징 명칭을 광주·전남 호국영웅들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서·남구 대대’는 ‘고경명 대대’로, ‘나주 대대’는 ‘김천일 대대’로 부대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조선 중기의 문인·의병장으로, 고경명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전투에서 애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김천일은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이밖에 ‘담양대대’는 ‘녹천 고광순 대대’로 변경했다. 고광순은 담양 출신의 한말 의병장으로,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이에 통분해 의병을 일으킨 바 있다.

31사단은 “자칫 잊힐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호국영웅들을 상기하고, 그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받아낸 부대원들의 호국 의지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부대명 변경은 향토부대로서 지역민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사실 지역 출신 역사 인물 이름을 활용해 명명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이미 2005년 신축된 전남도청의 경우 대강당을 ‘김대중홀’로, 1층 로비를 ‘윤선도홀’로, 직원 회의실을 ‘서재필실’ 및 ‘정약용실’로, 서문을 ‘이난영문’으로, 남문을 ‘김영광문’으로 이름 붙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번 31사단의 부대명 변경 작업도 부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타 지역 출신 장병들에게도 광주·전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無 等 鼓

“...죽이는 일도 죽어야 할 일도 없는 곳/ 어떤 종교도 없어요/ 평화롭게 살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1960년대 세계적인 4인조 록 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1940~1980)은 1971년 솔로 독립 후 2집 앨범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상상해 보라’는 의미의 이매진(Imagine)은 반전(反戰)과 평화의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 주목을 받았다. 이 곡은 그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노랫말과 악상을 옮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와 종교, 사적 소유를 넘어선 평등한 ‘불온한’ 세상을 상상했다. 이 곡에 대해 그는 “궁극적으로 반종교, 반민족, 반보수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다”(이민희 ‘왜, 그 이야기기는 음악이 되었을까’) 이 곡은 2002년 영국 BBC가 네티즌 1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5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100곡’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불후의 명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존 레논은 반전주의자였다. 1969년 성탄절을 앞두고 뉴욕과 도쿄, 로마 등

17개국 도시 광고판에 이런 문구를 띄우기도 했다. “전쟁은 끝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해피 크리스마스. 존과 요코로 부터.” 음악활동을 통해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던 그는 1980년 2월 팬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동시 다발 테러로 120여 명이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존 레논의 명곡 ‘이매진’이 파리 테러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독일 음악가인 다비드 마르텔로가 전날 밤의 참혹한 테러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 인근에서 ‘이매진’을 피아노로 연주한 것이다. 그는 “평기 어린 폭력을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피아노를 가지고 파리로 갔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가독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충우심을 버리고 상호 종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걸까? 유튜브(YouTube)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찾아다 보니 듣는다. 그의 노래 한 곡이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